문병란의 오월시와 문학적 증언

정민구*

목 차

1. 들어가며 : 사건의 기념과 진상의 규명 사이
2. 증언의 역능(1) : 사라지는 신체와 돌아오는 목소리
3. 증언의 역능(2) : 진상의 재현과 기억의 분유(分有)
4. 나가며 : 증언과 기억, 다시 오월 광주를 읽는 일

〈국문초록〉

본 논문은 문병란의 오월시(오월 광주를 증언하기 위해 쓰인 시)를 대상으로 하여 문학적 증언의 역능(力能)을 탐색하였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방식 안에서 망각에 이른다. 특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폄훼는 사건에 대한 망각을 넘어 사건에 대한 거짓된 기억을 형성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오늘날 오월 광주는 그러한 망각과 왜곡의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며, 여전히 진실의 규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월시의 증언적 역능에 대한 물음을 추동한다.

역사적 참상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에 있어서 기왕에 자주 언급되어 왔던 것은 사건의 재현 불가능성으로, 이는 일종의 문학적 제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학적 증언이라는 관점에 입각할 때, 오월시는 사건에 대한 재현의 역할을 넘어 사라지지 않고 돌아오는 목소리를 통해 증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망각과 왜곡에 대항하는 문학적 증언은 역사적 기억의 진실을 지금-여기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루는 집단기억에 기입하는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문학적 증언이 오월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망각에 저항하고 왜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Plus 사업단 학술연구교수

곡된 기억과 투쟁하며, 공동체적 기억의 분유(分有)를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타진(打診)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문병란, 오월시, 오월 광주, 역사적 사건, 문학적 증언, 기억투쟁, 기억의 분유

1. 들어가며 : 사건의 기념과 진상의 규명 사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한 광주,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5·18민주화운동,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5·18'이자 '오월 광주'[1]로 불리는, '그날'이자 '그곳', 물론 '그 사람들'을 포함한, 한국현대사에서 일어난 미증유의 역사적 사건은 어느덧 40주기를 앞둔 시공(時空)의 흐름 위를 지나가고 있다. 기억과 망각의 시차(視差) 속에서 오월 광주는 어떤 모습이나 내용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이 글을 쓰던 날들에 주요 언론에 보도된 오월 광주 관련 뉴스들의 경향을 비교하여 분석한 한 기사는 오월 광주의 현재적 생(生)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9년 "3·4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일간신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건대, 여러 "언론은 5·18 관련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거나 신군부 폭력 진압의 피해자 인터뷰를 하는 등 진상규명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상을 본격 파헤치는 보도보다는 … 자극적 망언 보도나 중계 보도에만 열을 올린 언론"이 많았으며, 그러한 언론은 "진상규명을 위한 타 언론사의 보도를 가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다.[2] 즉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오월 광주의 생은 여전히 규명과 은폐 사이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1) 이 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월 광주'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해당 기사는 오월 광주 관련 저녁종합뉴스(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대상) 기사 153건과 일간신문(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기사 156건을 분석한 결과를 통계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보다 망언에 주목한 언론은」, 『미디어오늘』, 2019.5.1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406)

있다.

기사문이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주년이 되는 해다."로 모두(冒頭)를 열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오월 광주로부터의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정작 놀라운 것은 기사문의 다기한 목적에 있다. 40주년을 앞둔 '기념할만한 해'에 기사문은 여러 언론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오월 광주와 관련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는 당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아이러니의 상황을 '지금-여기'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념할만한 해에 이르러서도 오월 광주와 관련하여 요청되는 것은 여전히 '진상의 규명'인 것이다.

기존의 것을 포함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과 그것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진실의 왜곡화에서 벗어나는 일은 괘를 같이 한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완료되는 날, 비로소 진실은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 혹은 '고문'[3]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념의 해는 여전히 요원하다. 왜곡이나 고문이 전치(轉置)시킨 진실의 지위가 제자리에 놓이게 되는 날, 사건의 실체가 온전히 규명되어 진실의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해야만 비로소 '진상(眞相)'이라는 이름을 빌어 사건에 대해 기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월 광주와 관련한 어휘적 용법에서 '진상'이라는 단어는 '규명(糾明)'이라는 단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진상 규명'이라는 익숙한 말에 주목해보자. 이 말은 어떤 '사실'[사실이면서 아직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은 것]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따져보고 거짓이 없는 모습이나 내용, 즉 진상(眞相)을 바로 밝히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일상생활 속

3) 영어에서 'torture'라는 단어는 '고문'과 '왜곡'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 'tort'가 'twist(비틀다, 꼬다, 뒤틀다)'라는 개념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틀린/뒤틀린 것이 말이나 의도라면 그것은 '왜곡'이 되고, 신체라면 그것은 '고문'이 된다.

에서 한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은 두 단어가 결합한 것이다. '진상 규명(眞相糾明)'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 통용되는 단어들을 담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어문규범에 맞는 단어들을 담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까닭은 그 때문이다.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을 가리키는 진상(眞相)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진실(眞實)'이 된다. 또한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규명(糾明)을 다른 말로 바꾸면 '증명(證明)'이 된다.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진실을 증명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요컨대 이 '기념할만한' 시대는 여전히 오월 광주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해야만 하는 시대, 진실에 대한 증명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시대, 그래서 '아직은' 기념할만하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왕의 문학 연구들에서 기념(물)화되거나 제도화되어가는 오월 광주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은 그런 연유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4] 그런데 오월 광주에 대한 기념화와 제도화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①사건의 화석-화를 경계하고 그 의미를 현재화하기 위한 규명/증명 작업과 더불어 ②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탓에 여전히 묻혀 있는 사건의 진상을 현재화하기 위한 규명/증명 작업을 요청하려는 이중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또한 본래 '밝고 명징한 것'을 '밝고 명징하게' 말할 수 없도록 만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야기한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어 사건이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저 두 가지의 방식은 공히 현실을 마주한

4) 일부를 소개하자면, "오월이 공식 역사에 등록된 순간부터 '사건'으로서의 힘을 잃고 제도화의 수순을 밟게 된 것 또한 사실"(강소희, 「오월을 호명하는 문학의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7면); "공식적 역사로 편입되면서 나타난 제도화 경향은 … 5·18을 과거의 사건으로 화석화시키는"(장은영, 「증언의 시학: 역사에서 윤리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40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시적 복원은 기억을 통한 기억의 사유화와 화석화를 거부"(한원균, 「문학의 정치, '광주민주화운동'의 시적 재현」,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16면) 등이 있다.

문학의 태도, 즉 문학의 윤리에 입각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문학(연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①이 도래할 진리(眞理)를 산출하기 위한 문학적 공정(工程)의 과정이라면, ②는 얽혀있는 진실(眞實)을 풀어내기 위한 문학적 증언(證言)의 과정에 해당한다. 물론 사건과 그것의 진실/진리를 둘러싼 두 가지의 방식을 반드시 구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방식은 얼마든지 서로 다른 지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①과 ②의 다른 지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논의의 진행을 위해 일정한 오류를 감안하면서 대강을 풀어볼 수 있겠다. ①에 입각한 연구 방식이 오월 광주라는 사건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기 위하여 오월 문학의 '미학성' 혹은 진리 공정의 '정치성'을 묻는다면, ②에 입각한 연구 방식은 해당 사건에 대한 오월 문학의 존재 의미를 현재화하기 위하여 그것의 '진실성'과 증언 공정의 '당위성'을 묻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사건 이후에 ①이 사건의 새로운 (재)의미화를 위한 문학의 역능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②는 사건의 지속적인 현재화를 위한 문학의 역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된 오월 광주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화[5]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오월 광주가 일어난 시공간적 좌표는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사건의 전후 상황에 대해, 오월 광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인 문병란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당시 그는 시집 출판금지를 당한 적이 있으며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을 만큼, 세상에 대해 '바른' 소리를 내기로 유명한 지역 인사이자 문단의 중견 시인이었다.[6] 그러나 오월 광주에서 일어난 참상(慘狀) 앞에서 그가 새삼스

5) 2011년에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15년에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개관하여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6) 문병란은 70년대 초부터 이미 광주에서 '거리의 교사'로 명성을 얻고 있었으며, 농민운

럽게 깨달은 것은, 아우슈비츠(Auschwitz)에 대한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의 절규나 오월 광주에 대한 여러 문인들의 참회(慙悔)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바른 소리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과 무능 그 자체였다.

시인으로서 갖게 된 무력감/무능이 만들어낸 수치(羞恥)와 죄책감(罪責感)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니 비인간적인 사건의 진실이 어둠의 길로 내몰리는 사태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憤怒)를 표출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방식은 다름 아닌 '시-쓰기'였다.[7] "젊은 시인 이상의 정력으로 광주문학을 거느리"[8]면서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보고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방식 또한 '시-쓰기'였다.[9] 당시에 그가 쓴 것은 분명

동, 양서보급운동, 교육운동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로는 최초였던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광주지부 활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수감된 양심수의 석방 운동에도 힘을 보탰다(이승철, 『광주의 문학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 문학들, 2019, 191~194면). 70년대 후반에 시집 『죽순밭에서』를 재간행하면서 정부로부터 판금조치를 당했으며 오월 광주와 관련하여 배후의 내란음모 선동자로 수배되기도 했다(문병란, 「시인이 걸어온 길(作家年譜)」, 『무등산에 올라 부르는 백두산 노래』, 시와사회사, 1994, 504~516면. 이후 같은 책은 『무등산』으로 표기함). 오월 광주에 관한 최초의 시를 썼던 시인 김준태의 다음과 같은 언급도 참조할 수 있다. "문병란 선생은 그만큼 광주라는 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를테면 광주시민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시인이다. 학생들은 서점가의 어디에서나 그의 시를 즐겨 찾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들인 어른들은 그의 꾸밈없는 노랫가락을 무슨 콧노래처럼 흥얼거린다." 김준태, 「영원한 청춘시인 문병란」, 『땅의 연가』, 창작과비평사, 1981, 142면.

7) 오월 문학에서 시 부문의 활동에 대한 견해를 묻는 <아주대학보>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문병란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다. "과거 광주 이야기만 해도 주목의 대상이 되어 버리던 시절에 광주의 울분을, 광주시민의 민주화의 열기를 시로써 … 억울하게 당해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는 것…." 아주대학보 편집부, 「우리시대 작가와의 만남」, 『아주대학보』, 아주대학교, 1989.1(『무등산』, 40면).

8) 고은, 「광주5월민중항쟁 이후의 문학」, 『5·18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330면.

9) 오월시에 대해 묻는 공주사대 국어과 <우금치문학> 인터뷰어의 질문에 대한 문병란의 답변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가 정당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자료적 성격이 강하고…." 우금치문학 편집부, 「황토빛 땅에 희망의 노래를 심으며」, 『우금치문학』 제20권, 공주사대 국어과, 1994, 『무등산』,

예술주의에 반하는 시[‘反詩’]였거니와 그의 시는 그 자체로 다른 시[‘詩’]로서 읽혔다.[10]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시라기보다는 차라리 분노였으며, 분노라기보다는 오히려 증언으로서 읽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시적 서정주의’라는 조어(措語)를 통해 스스로 언급했던 바,[11] 문병란이 쓴 오월 광주에 관한 시의 대부분은 문학의 미학성에 입각하여 축조된 시적 언술(‘시를 통한 표현’)보다는 문학의 윤리(성)에 입각하여 기입된 시적 증언(‘시를 통한 증언’)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지향을 전면적으로 고려할 경우, 시의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나, 애초부터 시적 지향을 달리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문학주의에 입각한 시에 반하는 시[反詩]라고 해서 그것을 시가 아닌 것[非詩]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시는 시라는 장르 안에 놓인 것이되, 자신의 지향을 증언의 기능에로 좀더 밀착시킨 시라고 말하는 편이 보다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증언 혹은 증언의 방식에 있다고 사료된다. 주지하다시피 증언이란 어디까지나 완결된 사건이 아닌 미완의 사건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완결된 사건을 위해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에도 그것은 사건의 완결성에 균열을 내면서 사건의 미완결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을 갖기 마련이다.

30면.)

10) 황지우는 미(美)라는 껍데기를 지향하는 예술주의 시의 속성들을 부정함으로써 삶이라는 알맹이를 지향하는 문병란의 반시[反詩]가 비로소 시의 이름을 획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문병란의 반시주의는 시가 아닌 시[非詩]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주의 시의 자리를 대체하는 다른 시[詩]의 자리를 모색하려는 시적 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황지우, 「문병란의 『죽순밭에서』에 대하여」, 『죽순밭에서』, 인학사, 1977(『무등산』, 170면).

11) 등단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나의 시세계에서 어느 새 저항·비판·고발·증언·풍자 이런 낱말에 어울릴 **반시적 서정주의**의 시를 쓰기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문병란, 「나의 삶 나의 예술」, 『전남일보』, 1991.4.20.(『무등산』, 71면) 강조는 인용자.

사건에 대한 증언(화)와 대척되는 지점에 놓이는 것이 기념화나 제도화이다. 그것은 사건에 대한 지배를 위해 명시적으로 사건의 완결성을 선포하고 암묵적으로 사건과의 거리나 시차를 형성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사건에 대한 기념-화와 제도-화가 미완의 사건을 완결된 것으로 고정시켜 버릴 위험을 가져오는 '지배적' 행위라면, 역으로 증언-화는 그것을 부정하고 균열을 내어 사건의 미완결성을 환기시키려는 '저항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2]

시를 통해 오월 광주라는 사건을, 그것이 여전히 미완의 사건이라는 점을 증언하는 일은 문병란에게 있어서 시-쓰기를 통한 저항의 방식에 다름 아니다. 오월 광주라는 사건의 발생과 사건의 지속에 대해 증언하는 시, 그것을 이 글에서는 문병란의 '오월시'라 부른다.[13] 오월 광주에서 시인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글로 써내려간 사건의 진실은, 아니 사건의 진실에 관해 증언하고 있는 그의 오월시는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②의 관점에서부터 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는 너무 이르게 '아카이브화'되어버린 그의 오월시를 지금-여기에서 다시 들려질 증언[反詩]이면서 다시 읽혀질 시[詩]로 정립시켜 보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 될 것이다.

오월 광주라는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여전히 사건에 대한 세부 증언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12) "예속과 수난으로 점철된 이 땅의 현대사가 배태한 여러 민중시인·민족시인 가운데서도 **특히 문병란 시인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가 30년 남짓한 시적 일생을 통하여 가장 일관되게, 그리고 **가장 전면적으로 지배적 이데올로기 장치로서의 문학적 모델을 거부하였다**는 데 있다."(조영훈, 「문병란 시세계의 언어, 사회, 혁명」, 『견우와 직녀』, 한길사, 1991(『무등산』, 238면) 강조는 인용자.

13) 이 글에서 말하는 '오월시'는 『오월시』 동인이나 그들의 작품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오월 광주를 노래한 다수의 시를 포괄하는 범주의 명명이다. 또한 시인 고은이 오월시의 앞면에서 문병란을 언급한 다음 구절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문병란을 비롯한 광주의 기성 시인을 아울러 젊은 시인들의 대거 출현으로 '오월시'와 그 밖의 광주 문학은 우리 민족문학운동에서 항쟁문학 또는 항쟁 이후의 문학에 매우 굳건한 실체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고은, 앞의 책, 318면.

글은 문병란의 오월시를 다시 소환하면서,[14]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적 증언이 지금-여기에서 과연 어떤 역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의 답을 타진(打診)해보려 한다.

2. 증언의 역능(1): 사라지는 신체와 돌아오는 목소리

2009년 8월 17일자 『나주신문』에는 「독자의 회상」이라는 제목 하에 오월 광주의 홍기일 열사를 그리는 한 독자의 글이 실렸다. 오월 광주에서 시민군으로 참여하여 총상을 입었고, 이후 건축노동자로 일하면서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과 아직 이루지 못한 민주화에의 책무로 괴로워하다가, 광복 40주년이 되던 1985년 8월 15일, 오월 광주의 상징인 도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채 "광주 시민이여 침묵에서 깨어나라"라고 절규하면서 분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산화했던 이가 바로 홍기일 열사이다.

'불타는 몸'이자 '타오르는 (불)꽃'[15]으로 여겨지기도 했을 법한 그의 육체를 그날, 그 시각, 그 거리에서 직접 목격했던 시민들은, "앗 저게 뭐야", "저런저런", "아이구야", "뭐야뭐야 응?", "어쩌냐? 아이구"와 같은 탄식에 배어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것이 사람인 줄 혹은 어떤 상황인 줄 전연 몰랐다. 그러다가 차츰 눈앞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

14) 이 글에서는 논의의 방향 및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문병란의 오월시 전부를 다룰 수 없었으며, 그의 오월시 가운데 특히 증언의 형식으로 쓰여진 시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되는 시들의 출전은 ≪오월 광주 대표 시선집≫ 4권(『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인동, 1987; 『하늘이여 땅이여 아아, 광주여』, 황토, 1990; 『마침내 오고야말 우리들의 세상』, 한마당, 1990; 『시-5월문학총서 · 1』, 문학들, 2012)이며, 본문에 인용시 제목만을 표기했음을 밝혀둔다.

15) 이후에 쓰인 다른 시에서 문병란은 홍기일 열사를 "타오르는 꽃"으로 호명한다. "나 대신/ 우리 모두의 아픔 대신/ 스스로 타오르는 꽃이 된/ 한 젊은이의 죽음"(<한 젊은이의 죽음> 부분), 문병란, 『화염병 파편 뒹구는 거리에서 나는 운다』, 실천문학사, 1989.

을, 그가 자신들에게 애써 목소리를 내어 '깨어나라'고 외치면서 불타는 몸으로 구청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음을 비로소 인식했을 때, "아니, 뭐야" "사람이래", "아이고 큰일났네", "사람이야, 사람인디", "으응? 사람이 왜?", "아이고 어쩐다냐?"에서 들리는 것처럼 급기야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급해졌고 걱정과 탄식이 이어졌다고 한다.

공기(空氣)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공기를 소진하는 불꽃에 휩싸여 죽어가는 인간을 목도했을 때의 심정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을 테다. "직접 목격한 이 사실에 10개월여를 먹지 못하는 고통으로 지내게 되었다.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스러웠다."라는 회고는 그래서 당시를 떠올리는 한 목격자-독자(獨者)의 비통한 심정이자 인간으로서 그것에 십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독자(讀者)의 인정적(人情的) 심정이기도 할 것이다. 그처럼 비탄의 심정이 가득한 거리에서 목격자-독자는 "무엇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이래야만 했던 걸까?"[16]라는 의문을 떠올렸다고 한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는 시민들 앞에서 불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당시 홍기일 열사의 분신 과정에서 뿌려진 전단지에는 "시민들이 깨어나길, 독재, 착취,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내용이 [수기로] 적혀 있었다"라고 한다. 그가 오월 광주의 시민군이었다는 것을 굳이 환기하지 않더라도, 분신하는 한 인간과 그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나온 의문의 근원이 오월 광주라는 사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로부터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쓰여진 목격자-독자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된다."라는 회고의 한 대목에서도 적확하게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던진 물음은 제 답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저 목격자-독자의 회고, 그리고 그 회고에 담긴 자문(自問)에서 다시 10여년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여기의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가 산화해야 했는가'라는 물음에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것일까.

16) 「독자의 회상 - 홍기일 열사를 그리며」, 『나주신문』, 2009.8.17.

'오월 광주 때문에' 그랬으리라는 역사적 사건의 호명을 통한 답변은 가장 우선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가장 가능한 답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가장 충분하지 않은 답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호명은 사건의 완료를 의미하기 쉬운데, 여전히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탓이다. 이를테면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폭도들의 만행'이 '숭고한 시민정신'으로 규정되어진다고"해서 광주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17] 그것은 많은 오월 광주와 관련된 진실(들)을 압축하고 에둘러서 그것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도록 쉽게 봉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방식의 답변은 물음의 지속성을 단절시킬 위험마저 내포한다.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면, 아직 답이 충분하지 않다면 물음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 다수의 시민들 앞에서 '외치는 불꽃'이 되어 산화할 수밖에 없었던 한 시민의 죽음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라는 물음 자체를 우리가 끊임없이 재생(再生)하는 일은 미래(未來)의 답변을 추동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홍기일 열사의 죽음에 대해 발화하고 있는 시 <타오르는 불꽃>에서 문병란은, 오월 광주라는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5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 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마취의 거리
> 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청맹의 거리
> 심장이 있어도 울지 못하는 산송장의 거리
>
> -<타오르는 불꽃> 부분

라는 것을 직시한다. 사건에 대한 망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직시와 함께 시적 언술에서 드러나는 것은 흥미롭게도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리듬(3-3-5-5)이다. 그것은 언뜻 일상적인 공간을 살아가

17) 황토 편집부, 「책 머리에」, 『하늘이여 땅이여 아아, 광주여』, 황토, 1990, 12면.

는 어떤 공동체적인 신체의 리듬처럼 보인다. 이는 오월 광주라는 사건 속에서 '깨어난' 시민들의 감각이 사건 이후에 다시 노동과 생활이 반복되는 '닫힌' 일상의 감각으로 되돌려졌음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읽힌다. 이때 '닫힘'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부정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데에 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리듬은 역사적 기억의 망각과 일상화된 신체의 현재성을 재생한다. 일상의 반복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의 반복은 과연 문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의 시가, 반복되는 일상의 리듬을 보여주면서, 아니 선연하게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보다 심층적인 인식을 통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의 거의 선연한 핏자욱"으로 표상되고 있는 역사적 참상, 그 앞에서 강렬하게 깨어났던 신체와 거리의 감각(기억)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잃어버린/잊어버린 것으로서 신체와 거리에 대한 절망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시간의 흐름과 일상에의 귀속에 따른 자연의 측면도 없지 않지만, 사건과 거리를 두도록 유도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지배세력의 공공연한 왜곡과 폄훼 시도에 기인한 바가 보다 크다고 하겠다.

당시 신문은 홍기일 열사의 분신 사건에 대한 짤막한 기사들을 내보냈는데, "광주 정부비방 유인물 뿌리며 20대 청년 분신자살 기도"[18]에서처럼 그것을 정부에 반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치기어린 청년의 자살 사건으로 쉽게 단정 짓거나, "분신 홍기일씨 영결식 재야단체 인사들 참가 못하게 막아"[19]에서처럼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경과 보도를 생략한 채, 재야인사들의 참석을 막아야만 하는 어떤 반정부적인 사건으로 축조하여 부각시키기 위한 보도들이었다. 사건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그것을 지배세력에 반하는 비방자의 분신자살로 확정하여 기술하는 기사 속에서는 당연히 사건과 주체를 둘러싼 진실이 온전히 포함될 수 없으며, 외려 그 과정에서 진실은 외면되거나 왜곡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진실의 외면/왜곡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18) 「광주 정부비방 유인물 뿌리며 20대 청년 분신자살 기도」, 『동아일보』, 1985.8.16.
19) 「분신 홍기일씨 영결식 재야단체 인사들 참가 못하게 막아」, 『동아일보』, 1985.8.24.

그것은 사건의 정당성을 박탈하는 기제로 작동한다.[20]

그래서 "보라! 태양이 떴어도 캄캄한 이 대낮", "보라! 법보다 의보다 총칼이 난무하는 이 몽둥이의 거리"와 같은 시적 언술에서 문병란이 외치는 것은 단지 일상의 거리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과 시민적 저항의 정당성이 박탈되어가는 거리를 '보라'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 목소리는 시인의 것이자 망각의 거리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던 홍기일 열사의 것이기도 하다. 즉 시인은 홍기일 열사의 목소리를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증언의 목소리를 통해 시인이 요청하는 것은 일상의 리듬 속에서 "보지 못하는"[시각], "듣지 못하는"[청각], "울지 못하는"[공감각] 것에 대한 자각, 즉 일상화되는 거리의 감각-불가능성에 대한 반성(反省)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혁명과 해방의 거리, 참혹한 죽음 속에서도 진실의 가시화를 외쳤던 깨어있던 감각의 거리가, 불과 5년 만에, 눈앞의 참상을 보고도 듣고도 느끼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무능의 거리로 변모해버린 현실 속에서, 시인은 감각의 기억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 산화했던 이에 대해, 깨어있는 불꽃의 목소리에 대해 증언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건의 기억이 망각되고 사건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가는 절망의 거리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진실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왜곡의 거리에서, 급기야 진실이 불타오르며 스스로 죽어가는 참상의 거리에서 무감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불의한 현실의 제 문제에 대하여 정당성 있는 시적 실천을 지속해 온 문병란에게 있어서 가장 가능한 것은 비분강개의 심정 속에서 진실의 죽음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시인의 책무를 굳게 수행해 나가는 일, 즉 시적 물음을 거듭하여 던지는 일 밖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 것이다.

---

20) 5월항쟁의 정당성을 박탈하려는 당시 언론의 표상 및 기술 방식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임종명, 「표상과 권력 : 5월광주항쟁의 전용」(『역사학연구』 제29집, 호남사학회, 2007)을 참고할 수 있다.

문병도 가로막고 보도도 가로막고/ 총칼로 에워싼 병동/ 동지의 숭고한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내 뒤를 이으라는 임종의 유언을 들으면서도/ 끄실린 시신마저 못 지키는 이 울분의 현실/ 누가 이 꽃다운 젊은이를/ 개 끄실리듯 잔혹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누가 이 거룩한 뜻을 짓밟아 개죽음을 만들려 하는가?
- <타오르는 불꽃> 부분

진실을 향한 몸부림과 고통, 죽음이 은폐되고 왜곡되었을 때, 그것은 진실이 새겨진 신체의 죽음 혹은 사람의 의연한 죽음으로 인식(認識)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람이나 가치가 없는' 개죽음에 불과한 것으로 오인(誤認)되고 만다. 문학과 관련하여 오래된 윤리적 믿음이 하나 있다면, 적어도 문학은 현실을, 시인은 현실을 바로 보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처럼 현실을 바로 보려는 시도(試圖) 안에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는 시인이 지향하게 되는 것은 현실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詩道)일 것이다. 휘트먼(W. Whitman)의 시를 읽어가며 누스바움(M.C. Nussbaum)이 "시적 정의(poetic justice)"에 대해 언급했던 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정확하게 상상하여 사려 깊게 측정하고, 나아가 그것에 관여하고 또 그것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바꾸어나가는 힘을 얻는 강력한 방법"[21]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숭고한 죽음'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죽음의 '거룩한 뜻'에 대해 거듭하여 시적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현실의 무엇인가를 바꾸어 보고자 하는 시적 정의에서 쓰인 오월시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문학적인 것이자 윤리적인 시적 태도에 입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오월 광주가 권력욕에 눈이 먼 어떤 통치자(들)의 악행의 소산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 내재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라고 했을 때,[22] 예의 시에서 가리키는 '누가'는 사건에 관여한 어떤 개인들 혹은 집행자들

21)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궁리, 2013, 195면.

22) "5·18은 이제껏 은폐된 한국사회의 모순이 본격적으로 생상하게 드러나는 계기"였다. 조정관, 「5·18항쟁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영향」, 『5·18 그리고 역사』, 도서출판 길, 2008, 143면.

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오월시’는 특정 정치인을 안중에 두지도 않는” 것이다.[23] 현실을 바로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건의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것으로서 ‘누가’는 ‘무엇’과 같은 의미역을 갖는다. 그렇다면 ‘누가’를 묻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를 묻는 방식이 된다. 요컨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꽃다운 젊은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죽음을 개죽음으로 왜곡하(“짓밟”)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즉 사건의 진실에 대한 규명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하늘도 무심치 않은/ 1985년 8월 21일 5시부터 12시 30분 사이/ 차마 감지 못하는 눈 다시 뜨고 다시 뜨고/ 까무라쳤다 다시 깨어나고 다시 다짐하고/ 되풀이되는 기나긴 싸움 속에서/ 마침내 죽음을 넘어 영생하는 죽음의 승리!
>
> -<타오르는 불꽃> 부분

예의 시에서 시인은 짧았던 몇 시간이자 깊었던 고통과의 싸움 속에서, 공권력의 감시와 언론의 왜곡/모독 속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한 유한한 존재의 죽음을 선언적 목소리를 통해 숭고한 것으로 들려주고 있다. 시인은 죽음의 숭고함을 가리켜 죽음을 넘은 “영생”이자 죽음의 “승리”라고 애써 불러보지만, 그의 육체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 이 거리 위에서 사라지고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승리라는 것인가.

시인이 말한 영생과 승리는 유한한 존재의 사라지는 신체에 기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에 기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이 목도한 죽음 앞에서 ‘뜨고자’, ‘깨어나고자’, ‘다짐하고자’, ‘되풀이되는 기나긴 싸움’은 사라지는 신체에서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로 옮겨와 기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회적인 신체의 움직임이 영속적인 목소리(언어)의 제스처로 전이되는 것이다. 또한 기억 작용의 메커니즘이 사건을 둘러싼 망

23) 이창민, 「해방의 역설 - ‘오월시’의 주제와 표현」, 『5·18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123면.

각과 기억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24]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시인의 성찰 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사건 전후의 진실 혹은 진실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살아남은 자의 마음에 의미화하면서 "새겨" 넣고자 하는 목소리의 증언적 역능이다.

> 내 무덤을 만들기보다/ 그대들 내 말을 새겨 들으라/ 내 무덤 앞에 꽃다발을 바치기보다/ 내 몸을 태우는 불꽃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몇 방울의 짠 눈물보다 / 그대 끄실린 내 육신 속에/ 마지막 샘솟는 피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
> -<타오르는 불꽃> 부분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인은 '복화술(複話術)' 혹은 '빙의(憑依)'를 통해,[25] 이미 죽고 없어진 존재의 목소리를 여전히 남아 있는 자의 것으로 전화(轉化)시킨다. 거기에서는 마치 죽은 자가 직접 진실을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죽은 자의 목소리가 "숭엄한 역사의 증언"으로 재생된다. 요컨대 신체는 죽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처럼 증언하는 시는 참혹한 사건의 이전에, 또는 사건의 이후에 비로소 사건과 관계된 죽음에 대한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리게 함으로써 사건과 관계된 죽음을 우리가 생동감 있게 직시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역능을 갖는다.[26]

시적 역능을 통해 지금-여기에서 '살아있는'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된, 존재/시인은 "일제 40년의 고통"과 "분단 40년의 오욕", "제국주의의 아가리에 물린…고난의 역사"에 대해 말하면서, "그 모순의 절정에서 터진 [것

24) 망각과 기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휴머니스트, 2005, 67~77면)를 참조할 수 있다.

25) 복화술(複話術), 특히 빙의(憑依)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시적 기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순욱, 「거창민간인학살사건과 증언시의 논리」(『한국문학논총』 제36집, 한국문학회, 2004)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조영훈(『무등산』, 242면)을 따라 '죽은' 진술에서 '살아있는' 발화행위로의 전환으로도 볼 수 있겠다.

26) Andrew Palmer and Sally Minogue, "Memorial Poems and the Poetics of Memorializing,"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Vol.34, No.1,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p.179.

이] …5·18"이라는 것을,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단속(斷續)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 연속(連續)에 의한 것임을 표명한다. 이러한 전언을 통해 희생자의 목소리는 자신의 죽음을 향한 '무엇 때문에'라는 애도(哀悼)의 꽃다발 대신, 살아남은 생(生)들을 향한 '무엇 때문에'라는 물음의 꽃다발=발화(發話/發花)를 지속해주기를 요청한다. 시인이 '숭고한 유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요청의 방식은 사건의 계기(契機)를 단속되게 하지 않고 연속되게 만드는 일이며, 그것은 곧 증언('숭엄한 증언')하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3. 증언의 역능(2): 진상의 재현과 기억의 분유(分有)

1987년 오월 광주에 관한 첫 번째 대표 시선집을 묶으면서 편자들은 "팔십년 오월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민족운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누구나 감히 섣부른 판단으로 군더더기 말을 덧붙일 수 없는 바, 어쩌면 그날의 광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미래에 속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오월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상당 부분 은폐당하거나 왜곡되어 왔으며, 그 전모는 고사하고 유언비어로 얼버무리려는 집권층의 의도가 그동안 있었다. 그러기에 지배자가 만든 위증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인 민중이 만든 참된 역사적 기록이나 증언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그날의 참모습이 아닐까 한다."[27]라는 말로 모두(冒頭)를 열었다.

편자들에 따르면, 시선집에 수록된 시들은 '시(문학)'이자 일종의 '증언'들이다. 아울러 그것은 유언비어를 일삼는 집권층이 만들어낸 위증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들이 만들어낸 참된 증언이기에 오월 광주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참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보

27) 「책 머리에」,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인동, 1987, 11면. 물론 ≪오월 광주 대표 시선집≫의 전반적인 출간 의도는 오월 광주에 대한 진상/진실의 표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자. 증언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의 '참'을 전제로 한다. 그렇게 볼 때, '참된 증언'이라는 표현은 '참된 참의 증명'이므로 일견 의미의 중복이 된다. 그러나 '참된 증언'을 앞의 "위증"이라는 표현과 결부 짓는다면, 그것은 오월 광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난무하는 '거짓된 증명'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언을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적 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월 광주 대표 시선집≫을 묶으면서 편자들이 '참된 증명/증언'에 대해 고민해야 했던 까닭은 여전히 세상에 오월 광주에 대한 '거짓된 증명' 혹은 '위증'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은폐 및 진상조사 회피, 5·18민주영령추모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행사 봉쇄 및 관련자 구속 등 오월 광주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집권층에게 오월 광주에 대한 진실 규명의 목적이 전무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28] "5·18은 역사의 정명(正名)도 얻지 못한 채 내연(內燃)한다. 흔히는 광주사태라고 부르지만, 광주의거 또는 항쟁 등의 주장도 타오른다… 올해의 5월도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럽다. 긴장이 고조된 거리의 모습도 여느 해와 다르지 않다."[29]라는 것이 ≪오월 광주 대표 시선집≫이 묶이던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솔직한 소묘라고 한다면, 오월 광주의 진실은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끄럽고 어지러운 혼란의 "사태"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부조리한 권력 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혼란의 사태 속에서 망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 사태가 혼란시키고 있는 것은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사건의 진실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진실에 대한 기억은 거짓에 대한 기억이나 진실에 대한 망각-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왜곡을 위한 기억과의 힘겨운 투쟁 국면

28) 추모행사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유족회를 분열시키려는 전략, 피해자들의 사건 감금 및 격리 등 집권층의 反진실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전남대 박사논문, 2002, 136면)을 참고할 수 있다.

29) 「횡설수설」, 『동아일보』, 1987.5.18.

에 놓인다. 이는 비단 오월 광주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기억하려는 자와 기억을 막으려는 자 사이의 이른바 '기억투쟁'은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항용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기억의 주체가 진실을 망각하거나 거짓을 기억하게 될 경우, 투쟁의 목적이었던 사건의 진실은 망각에 이르게 된다. 시인이

>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그대들/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가/ 다시 80만 개의 아픔으로 돌아오는/ 그대들 -<부활의 노래> 부분

에서처럼, 사건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주체들의 있음[삶]과 없음[죽음]에 대한 언급에 이어 다시 사건 이후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흔적의 지워짐[망각]과 돌아옴[기억]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러한 교차 속에서 투쟁의 목적이었던 진실이 지워질 위험을 포착한 까닭에서이다. 사건을 둘러싼 주체와 기억이 하나의 신체를 구성하는 것일 때, 기억의 지워짐은 주체의 지워짐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어떤 사람은/ 너의 죽음을 반국가 폭도죄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너의 죽음을 내란죄, 사회질서 파괴 소요죄라 부른다 -<송가> 부분

오월 광주에서 군부담론은 무엇보다도 먼저 광주의 '시민'을 '폭도'로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기억투쟁을 전개했다. 사람들이 시민을 폭도로, 진실을 거짓으로 전유하게 만듦으로써, 효과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찍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낙인효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상 당시에 형성된 "폭도담론이 갖는 부정적 낙인효과는 5·18항쟁 시기 고립 및 왜곡효과의 잔영과 맞물리면서 지역과 세대의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보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힘들이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의 기제로 현재화되어 작동하고 있"[30]다. 물론 폭도담론이 형성한 기억은 오월 광주에 대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실상 군부의 폭력에

저항했던 시민들은 폭도도 반란군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군부담론의 세력과 그 담론에 포섭된 사람들은 오월 광주의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왜곡하여 호명하지만, 그들은 다만 민주, 평화, 자유를 외친 민중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들에 대한 외부의 왜곡된 목소리를 가로지르면서 민중이었던 그들에게로 돌아가 그들 내부의 목소리를 재생하여 들려준다.

> 아아 그러나, 그날만은 나도 사람,/ 1980년 5월 20일,/ 그날만은 열렬한 광주시민,/ 그날은 결코 구두닦이가 아니었다/ 그날은 천한 사람도 고아도 아니었다/ 아저씨들 곁에서/ 나의 단골 신사들 곁에서/ 항상 부러웠던 대학생 여대생 곁에서/ 처음으로 불러 본 조국/ 처음으로 불러 본 애국가/ 그날은 결코 부랑아도 우범자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내 것을 만들고 싶었던 자유,/ 처음으로 내가 사람이라 외치고 싶었던 절규, –<망령의 노래>, 부분

에서 들리는 것처럼, 죽은 자(‘나’)의 목소리를 통해 시인이 증언하고 있는 바, 오히려 ‘그’는 혹은 ‘그들’은 처음으로 시민이 되는, 처음으로 공동체가 되는 자유를 느껴본, 사람답게 사는 느낌을 비로소 가져본 ‘민중’이자 ‘해방된 인간’이었을 뿐이다. 이처럼 민중이자 해방된 인간 존재로서의 느낌과 체험은 공동체의 기억을 이룬다. 그러나 공동체적 기억의 차원에서 이러한 느낌과 체험이 새로운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현재화되고 분유(分有)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이전의 부정적 낙인효과(‘그들은 시민이 아니라 폭도다’)가 본래의 공동체적 기억에까지 파급될 위험이 다분하다.[31]

---

30) 김희송, 「5·18항쟁시기의 군부의 5·18담론」,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3, 30면.

31) 기억투쟁과 공동체적 기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기억투쟁의 관점에서 제주 4·3과 광주 5·18의 경우를 대별하여 분석한 이성우,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 5·18과 4·3 비교연구」(『오토피아』 제26권 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를 참고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에는 사건 이후 기억투쟁의 부재로 인하여 공식기억(official memory)에 담긴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후자의 경

시적 생애 내내 지속적으로 사회현실의 정당성을 외쳐왔던 시인 문병란은 신군부 체제의 거짓된 담론이 언론 매체를 이용해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가는 상황 속에서 시인으로서의 무력감/무능, 죄책감과 대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시인의 심사는 "동지를 잃은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의 죄인이 되었구나"(<송가> 부분),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 모여/ 모두 참회의 피눈물 흘려야 한다"(<타오르는 불꽃> 부분), "당신들 앞에 서면/ 온통 부끄러움뿐인 우리들, 영령이시여!"(<우리들은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분), "빚진 죄인같이 안절부절 못하는/ 죽다가 살아남은 이 치욕 때문이다"(<다시 금남로에서> 부분)에서 보듯, 오월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적 언술을 통해 표명되고 있다.

>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하는가/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하는가/ 목 메어 부르는 진혼가의 절규 속에 있다 -<부활의 노래> 부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신군부가 유포한 폭도담론은 정의("사랑")의 외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맡긴 시민들을 죄인으로, 그들의 진정성(진실)에 입각한 행위를 반역성(거짓)에 결부된 죄로 명명했다. 그렇게 죄인으로 명명된 그들은 죄인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진실을 염원하다 죽어간 이들이 왜곡된 죄명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억울함과 비통함에 대해 말하(려)는 시인의 목소리는 더욱 처절한 '진혼의 외침'이 되어 발화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병란은 '불타오르지 못하고 숨어사는 존재로서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지만,[32]

우에는 사건 이후 지속된 기억투쟁을 통해 공식 기억을 부정할 수 있는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32) 문병란은 오월시와 관련하여 진행된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숨어 사는 마지막 방편으로 시를 택했습니다. 마지막엔 절대로 증오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학노트 가득 시를 썼었죠."라고 술회한 바 있다. 「시로써 민중 삶에 동참」, 『전남일보』, 1989.

진실을 향해 절규하며 외치는 목소리가 시인 '혼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었다는 점("누가 우리를…/누가 우리를…")을 염두에 둔다면, 그가 했던 일은, '우리'가 사건에 대해 절규하는 목소리 '바깥에' 따로 존재하는 개별자가 아니라 바로 그 목소리 '속에' 함께 존재하는/존재해야만 하는 공동체임을 일깨워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월 문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임헌영은 "광주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지역성도, 지방주의적 비극도, 개인적 감정과 정서의 차이도 사라지게 된다. 그 비극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의 어깨로 와닿"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33]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오월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오월 광주의 비극과 의미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시가 폭력을 추방할 수 없다는 비관론을 거부하자. 마찬가지로 시만이 폭력을 배격할 수 있다는 예술주의를 반성하자. 폭력의 시대에 시와 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자."[34]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는 시/시인은 할 수 없(었)다는 부정론과 시/시인은 할 수 있(었)다는 긍정론을 지양하면서, 여전히 거짓된 기억의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있어 우리가 시/시인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일 자체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인식의 표출로 읽힌다. 말하자면 오월 광주에 대해 증언하는 시는 사건을 마주한 시인을 위한 시나 사건에 참여한 시민을 위한 시가 아니라, 시 앞에서 사건을 기억하려는 우리들 모두를 위한 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오월시는 단지 작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진실의 기억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기제가 된다. 오월 문학을 통한 끝나지 않는 물음-던지기를 통해 우리는 폭력 앞에서의 무력감/무능, 자족적 위안을 넘고 기억의 망각이나 왜곡에 저항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할 진실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한 방편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11.14.(『무등산』, 419면).

33) 임헌영, 「5월문학의 역사적 의의」,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인동, 1987, 427면.

34) 임헌영, 앞의 책, 426면.

것이다.

증언하는 일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한 과정인 것처럼, 증언하는 시는 진실을 묻기 위한 한 방편이 된다. 증언을 목적으로 하는 오월시의 거개는 사건의 참혹한 현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거나 재구성한다. 문병란의 오월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재현한다. "젊은이들은 창자를 길바닥에 쏟아놓은 채/ 산짐승처럼 나자빠져 죽었고/ 더미더미 쌓였던 시체와 시체", "YMCA 양서조합 창턱에서 응전하다/ 들이닥친 계엄군의 사격을 등에 받고/ 앞으로 고꾸라져 숨진 고아출신 용준이", "도청 앞 분수대 앞으로 달려나가/ 맨주먹으로 탱크에 저항하다 죽어간/ 신학 대학생 유동운이", "고등학생 영진이가 외치며/ 총구멍난 앳된 가슴으로 끌어 안았던"(<송가> 부분) 오월 광주와 "절름발이 병신이 된 연인들/ 빼앗긴 눈 빼앗긴 팔다리/ 피묻은 변사체로 돌아온 친구들/ 쫓기며 갇히며 죽어갔던 사람들"(<우리들은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분)에서 보듯, 이들 시는 참상(慘狀)을 숨김없이 재현하면서 증언한다.

또한 증언하는 오월시는 고통의 재현과 더불어 오월 광주의 모습을 참된 공동체의 현현으로 재구성한다. "병원 앞에 열지어 선/ 여학생들의 헌혈로만 수혈이 모자라/ 우리의 피는 피가 아니냐 외치는/ 황금동 윤락녀들의 피까지/ 사경을 헤매는 젊은이들 핏줄기 속에 가서/ 따뜻한 동포애로 하나가 되던 공동체/ 어른과 젊은이, 학생과 노동자, 일하다 달려온 함평, 나주, 해남의 농민들/ 모두 다 함께 손에 손 마주 잡고/ 물밀어 가던 해방의 거리 금남로/ 그날, 우리들은 모두 한덩어리였다/ 그날, 우리들은 모두 한마음이었다"(<송가> 부분), "그날만은 양반도 상놈도 없었다/ 그날만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 그날만은 모두 다 한덩어리/ 그날만은 모두 다 평등한 시민"(<망령의 노래> 부분)에서 언술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그날, 그곳에서 본 것이 기성의 사회제도가 그어놓은 차별과 배제의 선(線)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주체들의 '참된 공동체'[35]였노라고 말한다. 이처럼 문병란의 오월시는 고통의 참상(慘狀)과 함께 공동체의 참상[眞相]을 증언

하고 있다.

오월 광주에 대한 망언과 왜곡, 그리고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여기에서, '오월 광주는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오월시를 통해 문병란이 재생하고 있는 저 두 가지의 참상은 여전히 증언으로서 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그것이 시[문학]인 이상 그러한 증언은 다시 시로서 읽힐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지금-여기의 현실은 그러한 물음의 정반대편에 놓여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36] 물론 비인간적인 학살과 그러한 학살에 저항했던 인간적인 공동체를 재생하고 있는 두 참상은 증언의 방식이어도 고통스럽고 시의 방식이어도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반복되는 고통에 대해 혹은 고통에 대한 지난 시대의 상투(常套)에 대해 이제는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다. 또한 오월 광주에 대해서라면 '새로운' 혹은 '다른' 문학적/미학적 형상화의 방법을 통해 덜 고통스러운 참상[慘狀/眞相]의 축조를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태도들 역시 문학적이며 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월 광주와 관련하여 여전히 증언이 요청되는 시대라면

35) 오월 광주에서 현현한 공동체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제출된 바 있다. 본고에 기술된 '참된 공동체'는 "항쟁공동체"와 "절대공동체" 개념을 참조한 것이다. '항쟁공동체'는 김상봉이 제안한 개념이다. "[5·18항쟁]공동체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존재기반 때문에 객체화되거나 주변화되지 않았"다. "모두가 그 공동체의 주인이요 주체일 수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5·18공동체이다. 그런 한에서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진리를 계시"하는 공동체였다. 김상봉, 「항쟁 공동체와 지양된 국가: 5·18 공동체론을 위한 철학적 시도」,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38면. "절대공동체"는 최정운이 제안한 개념이다. "절대공동체는 군대와 같이 누군가 투쟁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하여 만든 조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공포와 자신에 대한 수치를 이성과 용기로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민들이 만나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공포를 극복한 용기와 이성 있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결합한 절대공동체였다."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2012, 171~173면.

36) 근래에 들어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쓰인 시, 특히 역사적 사건에 관해 '증언하는 시'는 거개가 다시 읽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월 광주에 한정하더라도 증언시와 관련된 시집이 재출간되거나,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찌할 것인가.

고통의 유무, 고통의 종류, 고통의 정도 등 고통의 계열체는 증언하려는 문학에 있어서 내용의 상당(相當)이 될법하다. 죽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고통이나 죽음은 사실 작가의 것이 아니라 오롯하게 희생자의 것이 아닌가. 만약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에 대한 기억 또는 증언이 필요한 상황에서 희생자가 말하지 못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말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작가가 그것을 외면하지 못한다면, 그때 작가는 희생자의 고통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것만이 기억에 남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염두에 두면서 전진성은 고통스러운 역사적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점은 우리가 결코 희생자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공허'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부재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는 것뿐"[37]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오월 광주를 경험한 다수의 작가들에게 필연적 발병했던, '자신의 언어로 온전히 말할 수 없게 되는 병'으로 불리는 '실어증(失語症)'[38] 속에서 시인으로서 문병란이 할 수 있었던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날, 그곳, 그 사람들의 고통을 ('귀 기울여') 받아들이고 ('부재하는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면서, 그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하여 죽은 자의 목소리를 살아남은 자[시인]의 목소리에 기입하여 '오월시'를 쓰는 일 뿐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시를 쓰는 일이면서 동시에 진실의 왜

37) 전진성, 앞의 책, 396면.

38) "실제의 중력이 다른 이미지의 선택과 대체를 허용하지 않고, 사건의 충격이 문법적 구문에 충실한 문자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 오월문학의 실어증은 그런 의미에서라면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김형중, 「오월문학과 실어증」, 『인문학연구』 제45집,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83면. 한편, 이러한 '언어적 표현을 초과하는 극단의 역사적 경험'이 야기하는 병증을 "진술공포증"이라고 명명한 사례도 있다. 한순미, 「고통, 말할 수 없는 것: 역사적 기억에 대해 문학은 말할 수 있는가」, 『호남문화연구』 제45집, 호남학연구원, 2009, 107면.

곡에 대항하기 위해 증언하는 일이기도 했을 터이다. 문병란의 오월시를 사건의 진실에 대한 기억투쟁의 한 방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에서이다.

오월 광주에 대한 기억은 기념화되고 제도화된 특정일에 한정된 것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 오월 광주에 대한 망언과 왜곡의 시도는 상시적인 것이 되고,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 속에서, 증언하는 시가 갖는 역능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자로서 무력감/무능과 죄책감 속에서, 혹은 문학적, 윤리적 태도 속에서, 인간으로서 쓰지 않을 방도가 없었던 증언의 시, 오월시는 비단 사건의 진실을 기억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인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금남로에 와서 우리는/ 1980년 그날의 뜨거운 절규를 재확인한다/ 그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보상은 자유와 민주와 남북통일/ 민주를 역행하는 보혁의 허구성에/ 역사의 철퇴를 가하기 위하여/ 다시 금남로에 와서 우리는/ 영원히 내릴 수 없는 피 젖은 깃발을 일으켜 세운다"(<다시 금남로에서> 부분). 오월 광주를 바라보며 다시 '영원히 내릴 수 없는 피 젖은 깃발을 일으켜 세우는 일', 곧 증언하는 일의 목적이 진실의 규명에 있으며, 그것을 통해 지향하는 바가 '자유, 민주, 통일의 세계'라고 할 때, 오월시는 특정한 독자들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 "시도 노래도 불가능한 증언을 구하기 위해 개입할 수 없다. 반대로 시의 가능성에 기초를 부여하는 것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증언이다."[39] 오월 광주를 증언하는 시에 관해서라면 시가 증언을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이 시를 기초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오월 광주를 증언하는 시 자체를 통해 우리가 참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은 불가

39)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2, 54면.

능한 것이다. 다만 오월 광주를 증언하는 시를 통해 우리가 참상의 기억을 함께 '나누어 갖는 일(分有)'은 가능한 것이다. 기억의 분유는 공동체의 기억을 존속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한 방편이 된다. 그렇게 볼 때, 문병란의 오월시는 혹은 증언하는 오월시'들'은 증언이라는 시적 방식을 통해 여전히 지속되는 거짓되고 왜곡된 기억과 투쟁하면서, 오월 광주라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참된' 공동체적 기억을 분유하는 것을 자신의 역능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40]

4. 나가며: 증언과 기억, 다시 오월 광주를 읽는 일

앞서 가졌던 생각들과 던졌던 물음들을 다시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겠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오월 광주의 진실을 다시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다시 나누어 갖는 일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전히 진실에 대한 규명이 요청되는 시대이며,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끝나지 않은 시대라면, 진실의 규명을 위한 증언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증언하는 행위의 일면에 시적 증언이 있다. 물론 시적 증언은 현실의 법정에서 진술하기 위해 요청되는 증언이라기보다는 기억의 법정에서 진술하기 위해 요청되는 증언에 가까운 것이다. 거기에 증언하는 시로서, 오월 광주라는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망언이나 왜곡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쓰인 오월시가 있다. 오늘날 오월시는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라는 지역의 기억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살아가야 하는 나라의 기억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한반도의 역사적 터전 위를 살아가는 우리가 망각에 저항하면서 기억해야하는 오월 광주라는 역사적 진실, 사건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증언하고자 한다.

---

40) '오월 광주에 관한 기억의 분유 가능성'에 대해 본고에서는 '문병란의 오월시'로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오월시 전반으로 확장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역사적 과거와 현재의 역사는 별개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적 삶이 과거의 흔적으로 간주되어 잊혀지고 왜곡된다면, 남겨진 흔적 위를 살아가는 현재의 역사는 나아가야할 길을 잃게 된다. 하물며 역사적 삶이 불행과 수난으로 점철되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과거 역사는 그야말로 불행과 수난의 역사였다. 또한 역사에 대한 기억투쟁의 과정에서 우리는 망각과 왜곡을 동반한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한 불행과 수난의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났노라고 확신하여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잊지 않으면서 과거와 현재의 계속(繼續)을 위한 반성적 성찰이 요청되며, 역사적 기억이 살아있는 현재적 기억이 되도록 일상 속에서 망각에 대한 저항, 망언과 왜곡에 대한 기억투쟁, 지속적인 고투(苦鬪)의 수행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혹은 사건의 진실에 대한 폄훼-화와 왜곡-화는 과거는 물론이요 현재의 삶까지도 지워가려는 역사적 부정의 행위이다. 역사적 부정의 행위에 저항하는 일은 그러므로 시대적이고 공동체적인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오월시 <우리들은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에서 문병란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제삿날이 같은 날/ 우리들은 광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라는 과거와 아들이라는 현재(혹은 미래)가 지워지려고 하는 날, 지워지는 비극적인 날에도 우리는 결코 역사적 진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죽음이 오월 광주의 신체를 소멸시키더라도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을/살아있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출이다.

오월 광주에 대한 목소리를 발화하는 시가 사건의 진실과 함께 참된 공동체의 기억을 ‘우리-독자’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증언을 듣는/읽는 ‘우리-독자’가 광주-인이자 한국-인이며, 한국-인이자 불행과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를 지닌 세계-인, 곧 인류에 해당하는 존재를 지향한다면, 오월 광주를 증언하는 일과 그 증언을 ‘다시’ 듣는/읽는 일은 인류의 역사를 기억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증언과 기억의 행위가 더 나은 공동체로서의 인류의 삶을 만드는 기초(基礎)가 된다는 것에 의문을 부치기는 어렵

다고 생각한다.

한때 “화해보다는 투쟁이, 사랑보다는 이념이 필요했던 시기에 광주를 정말 ‘광주’ 답게 그린 시는 배척받았”으며, “단지 그 시가 ‘광주’를 그려냈다는 이유로 백안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된 기억투쟁과 더불어 “광주의 상처만큼이나 깊었던 이념의 골이 메워지면서 ‘광주’의 새로운 양식을 요구하고 있다.”[41] 오월 광주 이후로 오월문학에 대한 새로운 양식이 요청되는 것은 사건의 진실과 공동체의 의미화를 토대로 하여 조금 더 나은 삶과 일상에 대한 비전을 도래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이 요청되는 것은 ‘새로운 오월문학’에 대한 읽기와 더불어 문서고에 보관되어 잊혀져가고 있는 ‘오래된 오월문학’을 꺼내어 따로 혹은 겹쳐 읽어가면서 역사적 사건의 과거-현재-미래적 계속(繫屬)을 위한 틀과 결들을 지속적으로 벼려내려는 시도의 실천일 것이다. 문병란의 오월시를 시작으로 하여 아카이브에 잠들어 있는 오월 광주에 관한 시를 다시 읽어 가는 일을 이 글의 향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광주 정부비방 유인물 뿌리며 20대 청년 분신자살 기도」, 『동아일보』, 1985.8.16.
「분신 홍기일씨 영결식 재야단체 인사들 참가 못하게 막아」, 『동아일보』, 1985.8.24.
「횡설수설」, 『동아일보』, 1987.5.18.
「독자의 회상 - 홍기일 열사를 그리며」, 『나주신문』, 2009.8.17.
「5·18, 진상규명보다 망언에 주목한 언론은」, 『미디어오늘』, 2019.5.14.

5월문학총서간행위원회 편, 『시 - 5월문학총서 · 1』, 문학들, 2012.
김남주 · 김준태 편, 『마침내 오고야말 우리들의 세상』, 한마당, 1990.

41) 이황직, 「‘5·18 시’의 문학사적 위상」, 『5·18민중항쟁과 문학 · 예술』, 5·18기념재단, 2006, 33면.

문병란 · 이영진 편,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인동, 1987.
문병란, 『화염병 파편 뒹구는 거리에서 나는 운다』, 실천문학사, 1989.
_____, 『무등산에 올라 부르는 백두산 노래』, 시와사회사, 1994.
황토 편집부, 『하늘이여 땅이여 아아, 광주여』, 황토, 1990.

강소희, 「오월을 호명하는 문학의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62, 2015, 5~31면.
고 은, 「광주5월민중항쟁 이후의 문학」, 『5 · 18민중항쟁과 문학 · 예술』, 5 · 18기념재단, 2006, 315~346면.
김상봉, 「항쟁 공동체와 지양된 국가 : 5 · 18 공동체론을 위한 철학적 시도」, 『민주주의와 인권』 10(3), 2010, 5~46면.
김준태, 「영원한 청춘시인 문병란」, 『땅의 연가』, 창작과비평사, 1981, 142면.
김형중, 「오월문학과 실어증」, 『인문학연구』 제45집,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73~92면.
김희송, 「5 · 18항쟁시기의 군부의 5 · 18담론」,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3호, 전남대학교 5 · 18연구소, 2013, 5~35면.
이성우,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 5 · 18과 4 · 3 비교연구」, 『오토피아』 제26권 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63~86면.
이순욱, 「거창민간인학살사건과 증언시의 논리」, 『한국문학논총』 제36집, 한국문학회, 2004, 187~216면.
이승철, 『광주의 문학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 문학들, 2019, 187~216면.
이창민, 「해방의 역설 - '오월시'의 주제와 표현」, 『5 · 18민중항쟁과 문학 · 예술』, 5 · 18기념재단, 2006, 123면.
이황직, 「'5 · 18 시'의 문학사적 위상」, 『5 · 18민중항쟁과 문학 · 예술』, 5 · 18기념재단, 2006, 11~50면.
임종명, 「표상과 권력 : 5월광주항쟁의 전용」, 『역사학연구』 제29집, 호남사학회, 2007, 279~321면.
장은영, 「증언의 시학 : 역사에서 윤리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 2호, 전남대학교 5 · 18연구소, 2011, 39~66면.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전남대 박사논문, 2002, 136면.
조정관, 「5 · 18항쟁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영향」, 『5 · 18 그리고 역사』, 도서출판 길, 2008, 143면.
한순미, 「고통, 말할 수 없는 것 : 역사적 기억에 대해 문학은 말할 수 있는가」, 『호남

문화연구』 제45집, 호남학연구원, 2009, 91~131면.
한원균, 「문학의 정치, '광주민주화운동'의 시적 재현」,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7~38면.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67~77면/396면.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2012, 171~173면.
마사 누스바움,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궁리, 2013, 195면.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옮김, 새물결, 2012, 54면.

Andrew Palmer and Sally Minogue, "Memorial Poems and the Poetics of Memorializing,"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34-1,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p.179.

Abstract

Moon Byungran's Owolsi and Literary Testimony

Jeong, Min-gu*

This paper explored the puissance of literary testimony which appeared in Moon Byungran's Owolsi(poems written to testify to the May Gwangju). Past and present are continuing. However, the past historical events that we should remember in the present are to be forgotten in an artificial or natural way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In particular, the persistent distortion and destruction of historical events that have not been clearly identified serve as a mechanism for forming false memories of events in addition to forgetting about events. Nowadays, May Gwangju is still in a situation of oblivion and false memories. It still requires clarification of the truth. This situation evoked questions about the puissance of Owolsi.

It was the inability of events to represent, and it was also a kind of literary limit, that had always been a problem in the literary embodiment of historical disaster. But based on the view of literary testimony, Owolsi can be seen as carrying out the role of testimony through a voice that does not vanish beyond the role of representation of events. In addition, literary testimony against oblivion and distortion can serve as a process of filling out the truth of historical memories into collective memories that constitute the identity of the present-here community. As a result, the paper aims to explore that literary testimony can be a way to carry out a memory struggle for the historical event of May Gwangju, and to be a way for the partage of community memories.

Key Words : Moon Byungran, Owolsi, May Gwangju, historical events, literary testimony, memory struggle, partage of memorie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필자소개>
이름 : 정민구
소속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Plus 사업단
전자우편 : zizeku@gmail.com

논문투고일 : 2019년 6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9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9년 8월 26일